

창립 14주년에 즈음하여



이 일 남
(본협회 이사장 직무대행)

1986년은 우리 나라 경제가 높은 성장과 함께 국제무역수지 면에서 흑자 원년을 이룩한 한 해였습니다.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계속되는 호경기속에 관련 산업이 모두 착실하게 성장함에 따라 각종 건축물은 급격히 증가하고 대형화하였으며 이에 따른 위험 요소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88년의 큰 국제행사를 앞두고 이처럼 계속 늘어나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은 물론, 건물소유주등이 방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위험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산업의 발전에 비례하여 위험이 증가하고 증가되는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대형화재의 참사를 우리는 그간 국내외를 통해서 많이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서 한국화재보험협회는 대도시의 특수건물에 대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취급과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업무를 통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증진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로 창립 14주년을 맞이한 저희 협

회는 86회계연도중 그동안 안전점검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첨단 의 각종 시험설비와 숙련된 우수한 인력을 갖춘 우리 나라 최초의 종합방재시험소를 설립, 각종 방화제품의 성능시험을 실시한 것을 비롯 특수건물 2만 8천 3백 55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올림픽행사에 관련된 시설을 중심으로한 특별점검 1백 36건등 방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화재보험업무도 거수실적에서 5.8%를 초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7회계연도에는 저희 협회는 종합방재전문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보험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서비스향상, 새로운 방재기술의 개발과 효율적인 안전점검, 방재시험소 시험업무기반 확립, 위험관리업무의 적극적인 개발 등에 역점을 두어 7대 도시에 소재하는 특수건물과 전국의 기간산업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물론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의 희망이기도한 재난없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계속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특수건물 소유주 여러분과 손해보험업계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